

“
새
해
를
로
망
조
으
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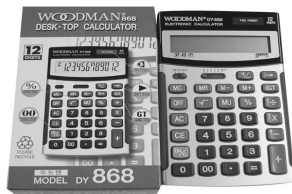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농업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농산물이 외국산 농산물보다 좋고 값이 저렴하다면 어느 누가 우리 농산물을 즐겨 먹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국산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연구해야지 옛날과 같이 한번 팔고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안 될 말이다.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일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원인을 스스로 알고 찾아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게 재배, 생산하여 무엇보다도 품질면에서 외국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값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국민들이 우리 것을 많이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질 좋고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함께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행위를 막아야 한다. 우리의 질 좋고 맛있는 농산물이 외국산으로 인해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농민들 스스로 외국산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김으로써 소중한 우리 것을 지켜내야 한다. Y

권순채/ 경주시 내남면



나의의견 상품은 성보화학(주)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3월호 주제 「새봄을 맞으며」

원고 3~5매 정도(A4 2/3)의 분량으로 매월 25일전까지 우편 또는 kcpark@koreacpa.org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